

📅 2025 최신 개정판

과세이연계좌 완벽 가이드

연금저축 · IRP · ISA
통합 절세 전략 안내서

제작 의도

세 가지 필수 계좌를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3대 계좌 완벽비교

💰 최대 절세 혜택

📊 최적 조합 전략





CONTENTS

과세이연계좌
완벽 가이드

01 왜 과세이연계좌인가?

02 과세이연계좌란?

03 3대 계좌 한눈에 비교

04 연금저축 완전 분석

05 IRP 완전 분석

06 ISA 완전 분석

07 연금저축 세액공제

08 IRP 세액공제

09 ISA 비과세 혜택

10 납입한도 총정리

11 운용방법 비교

12 수령 및 중도인출

13 ISA 연금계좌 전환

14 연령대별 활용 전략

15 소득별 최적 조합

16 FAQ

17 실행 체크리스트

18 참고·주의사항

19 마무리·연락처

WHY PENSION SAVINGS?

왜 연금저축이 필요한가?

100세 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금융 파트너입니다.

“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노후 소득 공백 보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에 대비하여,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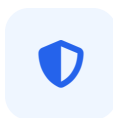
강력한 세제 혜택

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환급받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먼 미래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립니다.



장기 복리 투자

발생한 수익과 세금으로 낼 돈까지 재투자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복리 마법을 경험합니다.



물가상승 방어

단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ETF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합니다.

연금저축이란?

What is Pension Savings?

개인이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저축성 금융 상품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근거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과세이연 효과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루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가입대상 무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등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CORE CONCEPT

과세이연 계좌란?

Tax-Deferred Accounts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인출 시점까지 미뤄주는(Defer)
절세형 금융 계좌입니다.

※ 대표상품: 연금저축, IRP, ISA



세금 납부 연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즉시 떼지 않고, 먼 미래에 인출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합니다.



복리 효과 극대화

세금으로 나갈 돈(15.4%)이 계좌에 남아 재투자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납니다.



저율 과세 혜택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일반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실질 수익이 높습니다.



3대 필수 계좌

연금저축(개인), IRP(퇴직), ISA(종합) 세 가지 계좌를 조합하여 생애주기별 절세 포트폴리오를 완성합니다.

연금저축 완전 분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노후 준비 계좌.
높은 투자 자유도를 통해
적극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개설 시
ETF 실시간 매매 가능



특징: 누구나 & 자유롭게

가입 조건(소득·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 가능합니다.



장점: 운용 자율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이 없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일부 중도인출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단점: 해지 페널티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ETF 운용 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

적극적인 ETF 투자를 선호하는 분, 아직 퇴직 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분, 노후자금과 유동성 모두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IRP 완전 분석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안전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천후 절세 통장입니다.



퇴직연금 통합 관리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보관하거나, 본인
이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 재원으로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최대 900만원 공제

연금저축(600만원)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
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만
으로는 부족한 공제 한도를 꼭 채울 수 있습니
다.



안전자산 30% 의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형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인출 제한 및 수수료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어렵고, 금융사에 따라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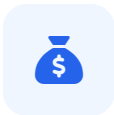
단, 55세 이후는 무사유 중도인출 가능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완전 분석 만능통장

예금, 펀드, ETF부터 파생상품까지 하나의
계좌에 담아 관리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
세** 혜택을 누리는 절세 계좌입니다.

“ 3년 만기 후 연금 전환으로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손익통산 및 비과세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
통산)하여 순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
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



3가지 유형 (중개형 추천)

신탁형, 일임형 외에 투자자가 직접 주식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가장 인
기가 높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
습니다.



납입 한도 및 의무 기간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합니다(이월 가능).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3년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
다.



연금 계좌 전환 혜택

3년 만기 후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 자원 마련'의 교두보
가 됩니다.

3대 과세이연계좌 한눈에 비교

연금저축 · IRP · ISA의 핵심 차이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세요.

FEATURES	 연금저축 개인 노후준비 필수	 IRP 퇴직금 + 세액공제	 ISA 만능 절세 통장
 세제 혜택	세액공제 연 최대 600만원 한도 13.2% ~ 16.5% 환급	세액공제 합산 최대 900만원 한도 세제 혜택 가장 강력	비과세 + 분리과세 200만원(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통합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 (이월 가능)
 투자 상품	ETF, 펀드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공격적 운용 적합	예금, ETF, 펀드 등 위험자산 70% 제한 안전 자산 30% 필수	국내주식, 채권 등 국내 상장 주식 직접투자 가능 가장 폭넓은 선택지
 중도 인출	일부 가능 기타소득세(16.5%) 부과 해지 없이 인출 가능	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주택구입 등) 외 전액 해지만 가능	자유 인출 납입 원금 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로 인출 가능
 수령/만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입 5년 경과 &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3년 의무 가입 만기 후 해지 또는 연금계좌 전환 가능(혜택)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2025년 기준, 최대 600만원 한도
※ IRP 합산 시 최대 900만원

연간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 단독 한도 (2023년 상향)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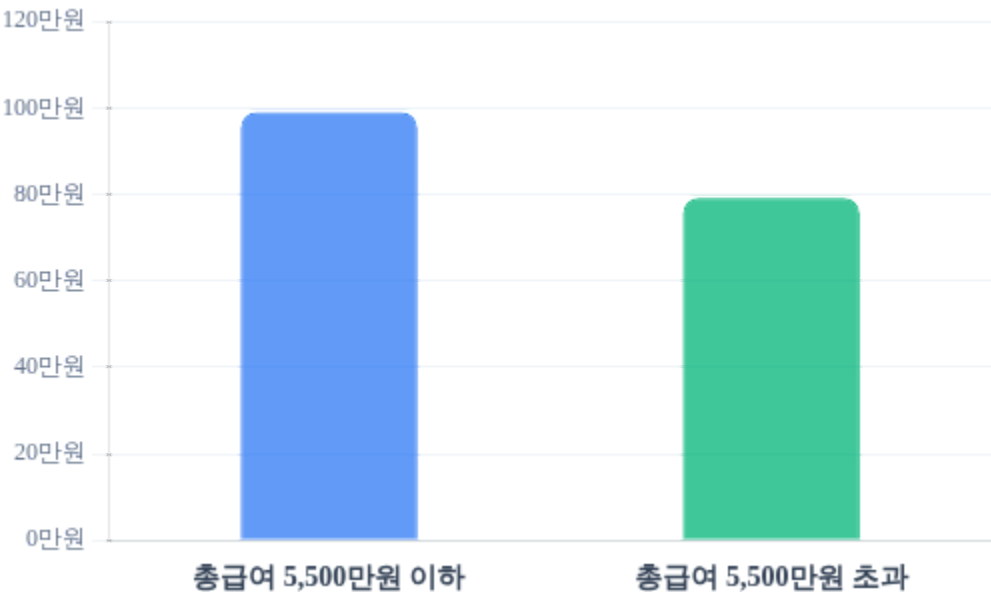
13.2%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시



소득별 최대 환급액 시뮬레이션

연 600만원 납입 기준



최대 환급액 (16.5%)

990,000원

일반 환급액 (13.2%)

792,000원

*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혜택

2025년 기준, 합산 최대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기준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 연금저축(600) + IRP 추가납입(300)



최대 환급 가능액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6.5%)



일반 환급 가능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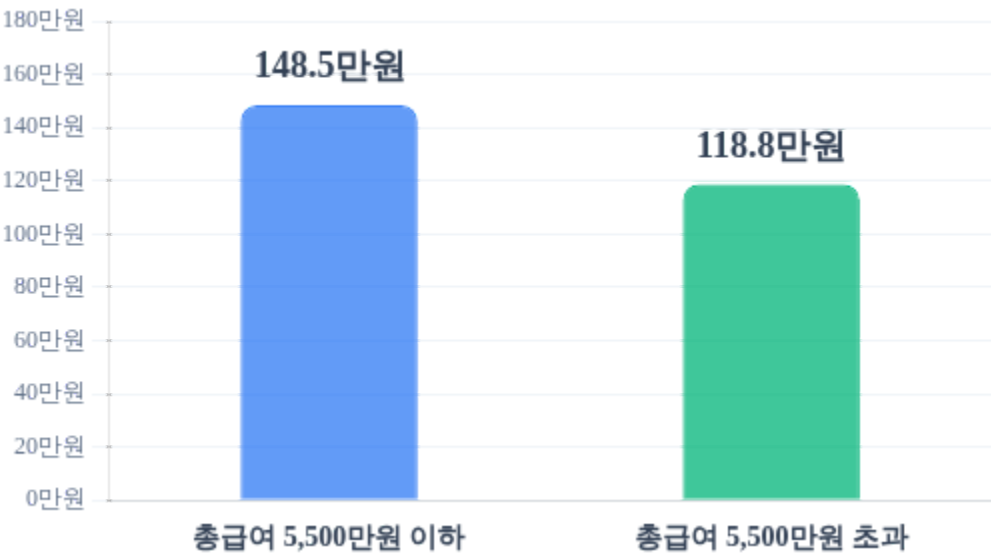
118.8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기준 (13.2%)



소득별 연말정산 환급액 시뮬레이션

연 900만원(한도) 납입 기준



최대 환급액 (16.5%)

148.5만원

일반 환급액 (13.2%)

118.8만원

* 연금저축 납입 없이 IRP에만 900만원 납입해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ISA 비과세 혜택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시 적용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만 19세 이상 누구나 (소득무관)



서민형/농어민형 한도

400만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한도 초과분 분리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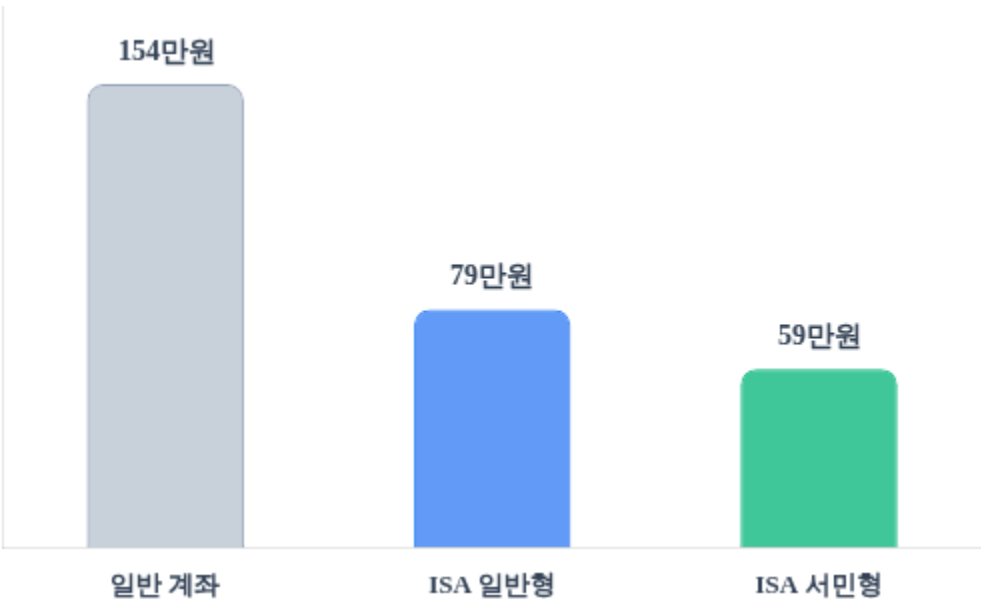
9.9%

✓ 일반과세(15.4%) 대비 5.5%p 유리



투자수익 1,000만원 발생 시 세금 비교

일반계좌 vs ISA계좌 납부 세액



일반형 절세액

74.8만원

▼ 48% 절감

서민형 절세액

94.6만원

▼ 61% 절감

* 투자원금 및 수익률 가정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총정리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계좌 + ISA 통합 활용 전략

연금계좌 통합 한도

1,800만원/년

연금저축 + IRP 합산 기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포함)

ISA 납입 한도

2,000만원/년

이월 가능 (최대 1억원까지 납입)
납입 원금 내 중도인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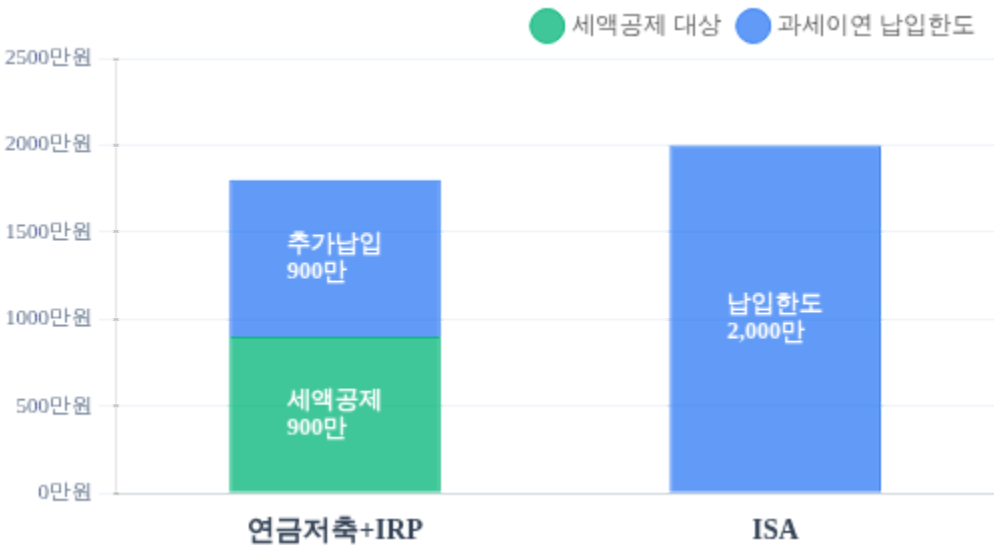
연간 최대 불입 가능액

3,800만원

연금계좌 1,800 + ISA 2,000
과세이연 효과 극대화

납입 한도 vs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도 과세이연 혜택 적용



연금계좌 추가 납입 여력

900만원

1,800만(한도) - 900만(공제)

과세이연 총 한도

3,800만원

연금계좌 + ISA

* ISA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 및 한도 증액 가능

운용 방법 상세 비교

위험자산 한도와 투자 가능 상품을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계좌를 선택하세요.

KEY SPECS	 연금저축	 IRP	 ISA
 위험자산 한도	100% 가능 주식형 ETF/펀드 비중 제한 없이 공격적 운용	최대 70% 제한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예금, 채권 등)	제한 없음 100% 주식 투자 가능 자유로운 자산 배분
 주식 직접 투자	✕ 불가능 개별 종목 매수 불가 ETF/펀드로 간접 투자	✕ 불가능 개별 종목 매수 불가 ETF/펀드로 간접 투자	✓ 가능 국내 상장 주식(삼성전자 등) 직접 매매 가능
 투자 가능 상품	ETF 펀드 리츠 다양한 펀드 라인업 강점	예금 ETF 채권 리츠 ELB 원금보장형 상품 다수 보유	주식 ETF 채권 ELS 가장 폭넓은 상품군
 예금/채권	제한적 MMF나 채권형 펀드 가능 순수 정기예금 불가	✓ 가능 저축은행 예금 등 가입 가능 안전한 원금 보장	✓ 가능 예금 및 장외채권 등 다양한 안전자산 편입

수령 및 중도인출 핵심 비교

자금의 유동성과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페널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CATEGORY	연금저축	IRP	ISA
수령 요건	만 55세 & 가입 5년 ↑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연금 개시 가능 동일 적용		3년 의무 가입 가입 3년 경과 시 언제든지 만기 해지 가능 (나이 조건 없음)
중도 인출	일부 인출 가능 계좌 해지 없이 필요한 금액만 자유롭게 인출 가능 (과세)	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파산 등) 외에는 전액 해지만 가능	납입 원금 내 자유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인출
정상 수령 세금	연금소득세 (3.3% ~ 5.5%) 연령별 차등 적용 (70세 미만 5.5%, 80세 이상 3.3%) 연간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비과세 + 9.9% 한도(200/400만)까지 비과세 초과 순수익은 9.9% 분리과세
중도 해지 페널티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 수익 전체에 부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제외)		비과세 혜택 박탈 의무가입 3년 미만 해지 시 일반 과세(15.4%) 적용 전환
활용 팁	담보 대출 가능 급전 필요 시 해지 대신 연금저축 담보 대출 활용	퇴직급여 관리 퇴직금 수령 시 IRP 입금 필수 (과세이연 효과)	연금 전환 혜택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 이체 시 10%(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ISA 연금계좌 전환 혜택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옮기면 세제혜택 극대화
IRP·연금저축 한도 외 추가 공제

추가 세액공제율

10%

연금계좌 전환 금액 대상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 적용



전환 신청 기한

6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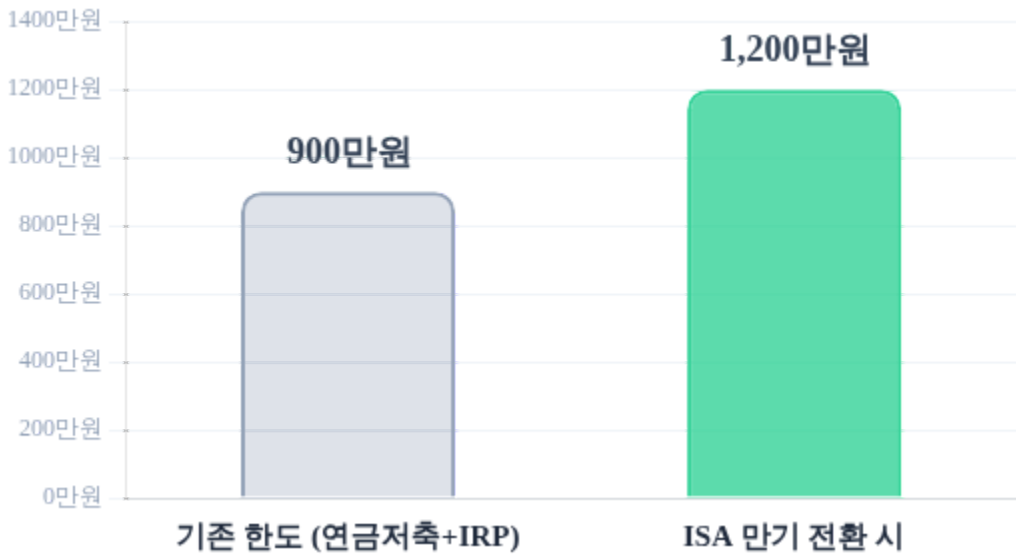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입금



MAXIMIZE BENEFITS

세액공제 대상 금액 확대 효과

기존 연금계좌 900만원 한도 + ISA 전환 시



최대 공제 대상 금액

1,200만원

최대 환급액 (16.5%)

198만원

+49.5만원 추가 환급 효과

* 4년간 전략적 활용 시 최대 약 496만원 절세 효과 가능 (금융투자협회 자료 참고)

연령대별 활용 전략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에 맞춘 과세이연계좌 최적 포트폴리오

20

사회초년생

시드머니 & 습관 형성

- ✓ ISA 우선 가입
결혼·주거 등 중기 자금 마련
- ✓ 연금저축 소액 시작
월 10만원이라도 자동이체
- ✓ 공격적 투자 (ETF)
주식 비중 80% 이상 유지

ISA 중개형

연금저축

30

자산형성기

본격 투자 & 절세 시작

- ✓ ISA 만기 → 연금 전환
추가 세액공제 + 과세이연
- ✓ 세액공제 한도 충족
연금저축 600만원 우선 납입
- ✓ IRP 계좌 개설
이직 시 퇴직금 수령 대비

연금저축

ISA 전환

40

자산증식기

소득 피크 & 절세 극대화

- ✓ 세액공제 Full 활용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 ✓ 추가 납입 고려
여유자금 1,800만원 한도 활용
- ✓ 포트폴리오 다각화
채권/리츠 등 자산배분 강화

IRP

연금저축

50+

은퇴준비기

수령 전략 & 리스크 관리

- ✓ 현금흐름 설계
연금 수령 순서 및 기간 설정
- ✓ 안전자산 비중 확대
변동성 축소, 채권/예금 위주
- ✓ 절세 인출 계획
연간 1,500만원 이내 수령

연금수령

채권형

소득별 최적조합 전략

내 소득 구간과 자금 상황에 딱 맞는 과세이연계좌 포트폴리오

TARGET GROUP



추천 계좌

우선순위 조합



납입 전략

최적 납입 금액



핵심 혜택

전략 포인트

사회초년생

저소득 / 결혼·주택자금 필요

ISA (중개형)

유동성이 높은 ISA 우선 가입
연금은 소액으로 시작

월 10~50만원

ISA 연 2,00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유동성 + 비과세

3년 후 목돈 인출 가능
비과세 400만원(서민형) 혜택

실속형 직장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IRP보다 연금저축 우선
(공제율 동일, 운용 자유)

연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100% 충족
(월 50만원 납입)

수익률 극대화

16.5% 세액공제 혜택
최대 99만원 환급

고소득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연금저축 + IRP

연금저축 한도 초과분을
IRP로 보완

연 900만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합산 한도 Full 활용

절세 한도 확대

13.2% 공제율 적용
최대 118.8만원 환급

슈퍼리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All + ISA

연금계좌 한도 + ISA 활용
과세이연 효과 집중

연 1,800 + @

연금 납입한도 1,800만원
+ ISA 만기 자금 전환

과세이연 (세금 연기)

종합소득세율 회피
건보료 부과 제외 효과

세미나 참가자 사전

사전에 보내주신 14개의 소중한 질문을 5가지 핵심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Total 14 Questions

💰 연금 수령 및 세금

- Q 연금개시시에, 년 1,5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아 종합소득세에 가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년 1,500만원 연금받는 연수의 기한제한은 없는지요?
- Q 연금개시시에 세금공제된 연금액과 비공제된 연금액을 각각 알 수 있는지요?
- Q 연금개시시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인출전략이 궁금합니다. 예로 따로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개설해야되는지

📄 계좌 관리 및 매도

- Q 연금개시시에 투자되고 있는 연금저축 및 IRP계좌에서 상품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개인이 매도해서 연금을 받는 것인지요?
- Q 55세 이상 시는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Q 연금저축 세금혜택 받는 통장과 추가납입통장을 별도 관리해야 수령시 세금계산이 쉽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 ISA 연계 및 목표

- Q ISA 만기시 연금으로 이전했을 때 수령시 세금 관련 궁금해요.
- Q IRP계좌 가입 5년 이후 연금계좌로 변경했는데 기존 연금계좌와 합쳐도 가능한지 그 후 세금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 Q 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대략 연금저축액이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 ISA 만기 및 전환 전략

- Q 3년 만기 남은 ISA를 연금저축 계좌등으로 넘기는 방법? ISA 계약해지 후 현금이체 후 신설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
- Q ISA 계좌의 활용, 연금저축 계좌의 연금 개시 방법
- Q ISA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다시 재가입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 연금 개시 후 운용

- Q ISA 3년 지난 후 계속 납입이 나온지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판단할 때 어떤 포인트를 따져야 하나요?
- Q 연금을 개시한 이후엔 어떤 식으로 운용하며 새 연금저축펀드 불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수령 관련 질문

세금과 인출 전략,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3

Q1 연 1,500만원 이내로 수령 시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기간 제한 없음 (매년 갱신)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매년 '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올해 1,500만원을 받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1,500만원 한도가 생성되므로, 매년 이 한도 내에서 수령액을 조절하면 평생 저율 과세 (3.3~5.5%)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Q2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안 받은 금액 구분이 되나요?

A. 시스템 자동 구분 관리

네, 금융회사 시스템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인출 시 세법상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인출 및 과세 순서]

- ①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비과세)
- ②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 30~40% 감면)
- ③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상세 확인 가능

Q3 연금저축과 IRP 인출 전략 및
계좌 분리가 필요할까요?

A. 전략적 분리 권장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인출 시 혼선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IRP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 감면)이 있으므로, 퇴직금 재원은 IRP에서 계획적으로 수령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 Tip: 연 1,500만원 한도 관리를 위해 계좌 분산 수령

계좌 관리 및 개시 시 운용

실전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운용 전략

Q4 연금 개시 시 투자 상품은 어떻게 매도되나요?

A. 현금 부족 시 자동 매도

연금 지급일에 계좌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할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보유 상품이 자동 매도됩니다.

일반적인 자동 매도 순서는 '현금 → 원리금보장 상품(금리 낮은 순)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ETF)'입니다. ETF를 직접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최근엔 원하는 펀드를 지정해 매도하는 서비스도 제공

Q5 55세 되자마자 받는 게 유리할까요?

A. 필요 없다면 '유지'가 유리

당장 현금흐름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① 과세이연 효과로 복리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② 연금소득세율이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기 때문
입니다.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낮은 세율 적용

Q6 세액공제용과 추가납입용 통장을 나눠야 하나요?

A. 분리 관리 강력 권장

필수는 아니지만, **계좌를 분리하면 세금 계산과 인출 전략 수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추가납입분(비과세 재원)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고 세금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계산(과세 대상 재원만 포함)에서 제외하기 편합니다.

📌 인출 순서와 한도 관리를 위해 '목적별 계좌 분리' 추천

ISA 활용 & 계좌 통합

ISA 연금 전환 혜택부터 목표 연금액 계산까지

Q7 ISA 만기 시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소득세(3.3~5.5%) 적용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금액은 '연금 납입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수

Q8 IRP 5년 후 연금계좌로 변경 시
기존 계좌와 합칠 수 있나요?

A. 계좌 이전 제도로 합산 가능

네, 가능합니다.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해 기존 연금저축이나 다른 IRP 계좌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과세이연), 합산된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됩니다.

i '해지'가 아닌 '이전' 신청을 해야 세제 불이익 없음

Q9 월 100만원 연금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A. 약 1.8억 ~ 3억원 필요

수령 기간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금보존형(4% 룰)**: 약 3억원 (이자/수익으로만 월 100만원 인출)
- **20년 확정수령형**: 약 1.8억원 (연 3% 운용수익 가정, 원리금 분할수령)

📊 증권사 '연금 계산기'로 개인별 시뮬레이션 권장

ISA 만기 전략

만기 자금 활용과 연금 전환 노하우

Q10 ISA 3년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A. 현금화 후 60일 내 신청

1. ISA 계좌 내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2. 해당 금융사 앱(MTS)이나 지점에서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3. 해지 시 '**연금계좌로 전환(이전)**' 옵션을 선택하거나, 만기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 계좌로 입금하며 '전환 납입'임을 신청합니다.

 **혜택:** 이전금액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Q11 ISA 계좌 활용과
연금 개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목돈 만들기 → 노후 연금화

[ISA 활용] 3년 이상 유지하여 비과세(200/400만원) 혜택으로 목돈을 불린 후,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연금 개시] 연금저축/IRP로 자금을 모으다가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사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여 수령 주기와 금액을 설정합니다.

→ ISA는 '볼리기', 연금은 '수령하기' 핵심 수단

Q12 ISA 3년 의무기간 후
재가입 vs 계속 유지?

A. 비과세 한도 소진 시 '재가입' 유리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200/400만원)에 도달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가 리셋되고,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넘겨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아직 한도가 많이 남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재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3년 주기 '풍차돌리기' 전략이 일반적임

연금 개시 후 관리 질문

전략적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운용 방법

Q13 ISA 3년 경과 후
'계속 납입' vs '연금 이전' 판단 기준은?

A. 세액공제 여력과 비과세 한도가 핵심

• 연금 이전이 유리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아직 채우지 못했거나, ISA 계좌의 수익이 비과세 한도(200/400만원)를 초과하여 세금 발생이 예상될 때 해지 후 이전하여 추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계속 유지가 유리한 경우:

비과세 한도가 많이 남아있고, 단기적으로 목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동성이 좋은 ISA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Point: 세제 혜택(공제) vs 유동성(인출)

Q14 연금 개시 후 운용은 어떻게 하며,
새 연금저축 불입도 가능한가요?

A. 계좌 분리를 통한 투트랙 전략

1. 개시 계좌 운용: 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향후 2~3년 치 수령액은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배당·인컴형 자산으로 굴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 불입: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납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적립을 계속하고 싶다면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 및 운용을 병행하면 됩니다.

 수령 계좌(인출)와 적립 계좌(납입)를 분리하여 운용

NOTICE

참고 및 주의사항

Important Notice & Disclaimer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025년 기준 세법 및 금융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행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요약 자료

본 자료는 복잡한 연금 및 세제 혜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요약·정리된 교육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 해석이나 정식 권유문이 아닙니다.



세법 변동 가능성

관련 세법 및 금융 규정은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 및 실행 시점에 금융사나 국세청의 최신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개인의 소득 구간, 재무 상황, 기존 가입 상품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권장합니다.



투자 판단 책임

연금된 금융투자상품(ETF, 펀드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준비의 시작, 과세이연계좌 활용부터입니다.
본 자료가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ACT & FEEDBACK

업데이트 제보 및 문의

연금저축.com 페이지 하단 이메일 참조



DATA SOURCE

연금저축.com

국세청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각 금융사 공시자료

※ 본 자료는 2025년 기준 요약본입니다.